

SK, 일본 · 홍콩서 영업실적 IR 개최

SK는 9월 6-9일 일본과 홍콩에서 해외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9월1일 발표했다.

해외 IR에서는 JP모건에서 영입한 이승훈 IR 담당상무가 주요 투자자들을 상대로 2005년 상반기 영업실적과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SK는 8월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해외 IR을 진행한 바 있다.

SK관계자는 “해외 IR은 소버린자산운용이 SK 지분을 매각한 뒤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주요 투자자들에게 소버린이 떠난 이후의 비전과 사업전망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9/02>